

좋은 교사가 되라

종교란 무엇인가? 만일 종교가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신앙 생활의 전제이고 삶의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된다. 물론 이 신념이라는 것이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진리가 존재한다면 진리를 비진리와 구별될 수밖에 없고 비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겨 비본질적인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말하는 자세에서의 문제로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뭘 믿으면 어떤가? 뭘 믿든지 열심히 믿고 착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통용되는 말인가? 하지만 무엇을 믿는가가 어떻게 사는 가, 왜 그렇게 사는가를 결정한다면 무엇을 믿는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한 행동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것은 그 목적이고 동기이기 때문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성공이 실패로 보일 수 있고, 실패가 성공으로 보일 수 있다면 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목적에 의해서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신앙적인 입장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진리에 있어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란 단순한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고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다. 바울은 실력과 좋은 마음씨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즉 교리와 생활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온유하고 마음씨 좋은 돌팔이 의사는 좋은 교사라고 볼 수 없다).

1. 상황적인 배경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와 디모데와 함께 동쪽으로 여행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소아시아로 보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교회도 컸으리라 짐작하는데 그 곳에 거짓 선생들이 여럿 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후에 당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그곳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리라.

2. 디모데서에 나타난 거짓된 교훈

디모데서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들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짐작이 되기는 하지만). 혹은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고 혹은 유대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다 교회를 어지럽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1)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는 사람들(딤후1:3; 4:7)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창세기의 족보를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교리적인 토론이나 연구가 유해하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울의 모든 말이 결국은 다 교리이다.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교리나 교훈이 끝없는 변론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경건한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만일 손톱부활파와 손톱소멸파가 있어서 논쟁을 벌인다면 어떨까? 천사의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이단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그 문제로 교회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궁금증과 호기심의 자극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가 가까이 갈 수도 있으니까(그렇지 않다면 학자들의 일부 학문적 성과들은 불필요한 사변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테니까). 신화와 족보에 착념하는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였다는 것도 있었다(엡4:14).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의 정확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a.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교리의 목적은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위선됨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교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지 하나님께 회의를 갖거나 이웃을 미워하게 된다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것이다(물론 사랑이라는 말이 언제나 무조건적인 용납을 의미하지 않음은 전제되어야 한다).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이런 지도자들을 가리켜 율법교사가 되려고 했지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다.

b. 그러나 그러니까 교리가 아닌 사랑이라는 공식은 맞지 않는다.

바울은 오히려 교리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cf.신8:1-3). 무엇을 믿는가는 어떻게 사는가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 잘 살면 되지”는 맞는 말이 아니다. 또한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와 상관이 없는 교리나 교훈도 의미가 없다. 경계의 목적은 분쟁이 아닌 사랑이고 사랑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 생활인 것이다.

c. 바울이 경계한 것은 헛된 신화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헛된 신화란 꾸며낸 것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가를 보여준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사람이 지어낸 말일 수는 없지 않은가! 바울이 말한 허탄한 신화(old woman's fable, 혹은 fables fit only for old women)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나 해줄 법한 미신적인 이야기들이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들로 본질을 흐린다면 그것 또한 마땅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d.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화평을 따르며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딤후2:22-23).

바울이 말하는 청년의 정욕이란 무엇일까? 적어도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청년의 정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한 욕심이 아닐까? 젊은 디모데의 젊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청년적 정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청년적 정욕이란 결국 사변적인 것들로 화평을 깨뜨리고 분당을 짓는 것을 의미하리라(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e.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피하라(딤후3:5).

이들 역시도 변론을 좋아하지만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여자들을 유혹했는데 거짓 선생을 따르는 여자들은 열심히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었다(안네와 얌브레).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3:12)고 한 말이 재미있다. 특히 딤후 3:2-4절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거짓 교훈을 말했던 사람들 중에는 요즘 말하는 기복주의자들의 기복적 교훈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2) 금욕주의(딤후4:1-6)

영지주의의 영향을 교회가 틀림없이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교회에 들어온 선생들 중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육신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육신에 속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쾌락적 영지주의와 금욕적 영지주의가 나뉘어졌다. 에베소 교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금욕적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 같다. 이들은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쾌락적인 영지주의자였다는 말이 아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그런 것들에 의해 좋은 그리스도의 일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식을 많이 하면 좋은 일군인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 좋은 일군인가? 사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 바울로서는 더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할 만도 하다. 하지만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역의 효율성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

a.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딤후4:4).**

못 먹는 음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거나 음식을 먹는 일이 윤리적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중립지대(adiapora)의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바울은 특정한 음식에 의해 경건을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다. 바울도 끝까지 고기를 먹겠다고 고집하지는 않지 않았는가(고전8:13)!

b.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딤후4:5).**

음식이란 것이 원래는 부정한 것인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해진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언급된 말씀이나 기도가 식사 전에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사실인 듯 하나 4절에서 바울이 제시한 논리는 음식이란 원래부터 선하다는 것이었으므로 기도와 말씀은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즉 식사기도를 하고 먹으면 거룩한 음식이 되고 식사기도를 하지 않으면 음식이 부정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받으면 음식을 먹는 일도 거룩한 일이라는 의미이다. 기도와 말씀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